

언어장벽을 허무는 첨병 '국제회의 통역사'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교수 허지운

국가간 경계가 없어지고 국제 교류가 활발한 세계화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통역사지요. 통역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관광지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다른 언어로 말을 전달해주는 통역사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모여든 유명 관광지부터 각국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까지... 통역사가 활동하는 영역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 외국인의 법정 진술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법정 통역사,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돕고 검사 결과를 전해주는 의료 통역사 등 통역사가 활동하는 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이렇듯 통역사가 활동하는 다양한 장소 중에서도 통역사의 전문성이 극대화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회의장이지요. 국제회의장은 특정 분야에 정통한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주는 국제회의 통역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통역사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꿈을 좀 더 구체화해 국제회의 통역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국제회의 통역사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국가간의 교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국제회의도 더 자주 개최되기 때문이지요. 국제회의 통역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기 위

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 국제회의 통역사가 하는 일은?

회의장 뒤 부스에 앉아 동시통역 진행

헤드폰으로 외국어 연설 청취→우리나라 언어로 번역

→청중에게 실시간으로 전달

▶실시간으로 전문가의 말을 통역

발표자와 함께 연단에 서서 발표자의 말을 한 두 문장씩 끊어 전달하는 모습, 한 두 명의 청중 뒤에서 들은 말을 곧바로 다른 언어로 귓속말로 작게 속삭이며 통역하는 모습 등... 우리가 갖고 있는 통역사의 대표적인 통역 모습이지요. 그런데, 국제회의장에서선 이와는 좀 다른 방식의 통역이 진행됩니다.

국제회의 통역사는 회의장 구석에 마련된 부스에 앉아, 헤드폰으로 발표자의 말을 들은 즉시 마이크에 대고 발표자의 말을 통역합니다. 즉 동시통역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국제회의 통역사가 통역한 내용은 수신기를 통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문가와 청중에게 전달됩니다. 국제회의장에서 동시통역이 진행되는 이유는 국제회의의 성격 때문인데요.

※ 통역의 종류

동시통역	발표자의 연설을 실시간으로 청중에게 전해주는 통역
순차통역	발표자의 연설을 한 단락씩 끊어서 청중에게 전해주는 통역
위스퍼링 whispering) 통역	청중이 소수일 때 별다른 장치 없이 한 두사람 뒤에서 속삭이듯 진행되는 통역

만약 국제회의장에서 순차통역이나 위스퍼링 통역이 진행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국제회의장을 상상해보세요. 여러 국가에서 모인 수백 명의 각국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회의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됩니다. 순차통역이나 위스퍼링 통역으로는 통역을 정확하고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지요.

각국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국제회의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통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표자 한 명의 말을 조금씩 끊어가며 통역하는 순차통역이나, 한 두 명의 청중에게 속삭이면서 통역하는 위스퍼링 통역보다는 실시간으로 발표자와 청중을 연결하는 동시통역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회의 통역사는 말의 핵심을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 국제회의 통역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언어 능력+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집중력과 체력

각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국제회의장

- ▶양쪽 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언어 능력 필수!
- ▶짧은 시간 안에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분석력과 순발력 필요!

국제회의가 다루는 다양한 주제, 전문적 내용

- ▶폭넓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섭렵 중요!

회의는 장시간 진행

- ▶집중력과 체력도 필요!

국제회의장은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되는 곳입니다. 이들의 소통을 책임지는 국제회의 통역사. 양쪽 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언어 능력은 필수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통역이 이뤄지므로 짧은 시간 안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분석력도 요구되지요.

국제회의에서 다루는 주제는 정보기술(IT), 경제, 금융, 과학, 법률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니만큼 내용 또한 전문적입니다. 따라서 국제회의 통역사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이해하고 통역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다양한 국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주제에 대해 통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기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순발력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국제회의는 길게는 6시간 이상 이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긴장을 놓치지 않고 발표자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체력도 필수겠지요.

▼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려면? 통역번역대학원 졸업이 일반적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과 전공학과 제한은 없어
대부분 통역번역대학원 졸업 후 국제회의 통역사 취직, 입학 경쟁률 높아
▶ 통역번역대학원 입학에 원하는 학생이라면 체계적인 준비 필요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어떠한 전공을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은 오히려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는 길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탓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막연하고 답답함을 느끼지요.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길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통역번역대학원 학생들은 순차통역, 동시통역 등 다양한 통역의 종류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실습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통역, 경제통역 등 특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통역도 공부합니다. 또 외국어는 물론 한국어의 어휘, 문법, 작문도 깊게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역번역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요? 전공 및 연령과는 상관없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통역번역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인기 있는 대학원의 경우 입학 경쟁률이 치열하여 2~3년간 독학하여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통역번역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합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 국제회의 통역사,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한국어 공부를 놓치지 마라!

통역사는 외국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역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통역이 완성되는 것이죠.

한국어를 모국어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았다가는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등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오역으로 이어져 전문가 간의 원활한 소통도 어렵겠지요. 전문적인 국제회의 통역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한국어 어휘, 문법, 문장 표현 등을 완전히 새로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외우고 익혀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 소통을 가로막는 언어 장벽을 허무는 첨병, 국제회의 통역사. 국제회의 통역사를 꿈꾸는 학생은 외국어 실력뿐 아니라 한국어 능력을 겸비하여 자신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